



## LA한국교육원, 학생 주도 한국어반 채택 모델 적극 지원한다

- Cypress High School 한국어반 개설을 이끈 LoveKo 학생 연합회 첫 공식활동 지원
- LoveKo 한국 교장단 연수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 강조
- LA한국교육원 학생홍보대사 임명 및 학생 연합회 활동비 지원

□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10월 31일(목) Cypress High School 한국어반 개설을 주도한 김다은(12th), 이혜인(12th), 심윤환(12th) 학생이 결성한 LoveKo 학생 연합회의 첫 공식 활동으로서 대한민국 교장연수단을 대상으로 그간의 활동 과정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.

- 이 날 발표에서 세 학생은 한국어반 개설 활동을 결심하게 된 동기와 절차를 설명하고 난관을 극복한 과정과 성공 요인을 소개하며 기존의 교사 및 교육구 주도 한국어반 개설 방식에서 벗어난 학생 주도 방식의 의의와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.
- 특히, 세 학생은 사이프러스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 교육, 한국 영화·드라마 보기를 통한 한국문화 소개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해 LoveKo 학생 연합회를 결성한 과정을 소개한 대목에서 43명 교장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. 학생들은 <우리 학교에 한국어반 개설하기> 학생 매뉴얼을 제작해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나누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함께 비전을 키워나갈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(문의: [lovekostudentunion@gmail.com](mailto:lovekostudentunion@gmail.com))
- 이날 연수에 참여한 00교장은, “학생들의 주도면밀함과 끈기를 보고 감탄했다”고 말하고, “교육자가 학습자의 바람에 관심을 갖고

학생이 자신의 배움에 주인의식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”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
- 김다운, 이혜인, 심윤환 학생은, “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를 듣고 주변 다른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있어 두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만나 개설 과정과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한국어반 개설 활동을 도와주었다” 고 말하고, “나와 같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다” 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.
- 이날 세 학생을 LA한국교육원 학생 홍보대사로 임명한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은, “학생은 학교의 당당한 주인이고, 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방식 등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도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세 한인 학생들이 보여주었다” 며, “앞으로 교육원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인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국어·한국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
붙임 :사진 3부.

사이프러스 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한인 학생 이니셔티브 발표 자료.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  
(213-386-3112) Homepage: [www.kecla.org](http://www.kecla.org)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	담당자	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	담당자	

사진 1: LoveKo 학생 연합회 학생들과 대한민국 교장 연수단



사진 2: Cypress High School 한국어반 개설 활동 과정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김다운(12th), 심윤환 (12th), 이혜인(12th) 학생 (왼쪽부터)



사진 3: 한국어반 개설 설문조사 과정·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심윤환 (12th) 학생

